

월간 제 41 호
2005년 5월 30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 이달의 말씀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편집인 겸 발행인 · 유은상 / 발행처 · 관악구 신림2동 103-170 대학촌교회내 / 전화 · 888-9111

2005. 1학기 종강예배

종강예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호와와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시110:3-4)

일시_ 2005_05_30_월
장소_ 문화관 중강당
강사_ 강요한 선교사님, 인택, 우주백 선교

5월30일 오후 6시부터 문화관 중강당에서 2005 1학기 종강예배가 열린다. 기독교수들 기독교학생들 기독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지난 1학기동안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된자들이 교제하는 모임으로 갖게 된다. 이날 설교는 우즈베크스탄에서 사역하는 강요한 선교사가 담당한다.

서울대학교교회, 세례식 거행

5월8일 주일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오후의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채중석, 백주희, 최연우 등 3명의 형제와 자매가 세례를 받았고 오후의 영어 예배에서는 서울대학교 유학생인 Dubin과 Daniel 등 두 명의 형제가 세례를 받았다. 지난 가을

세례식에는 22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은 바 있다. 몇 주 후에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교육중이다. 서울대학교교회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요망된다.

교직원 기독교신우회 예배, 매주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56동(자연과학관)106호에서 기독교신우회 예배가 드려진다. 찬양과 기도, 이종용목사의 말씀인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예배에는 교파를 초월하여 직원 중 모든 기독교인이 참석할 수 있다.

대학내의 기독교인은 500명 정도나 보통 정기예배에는 50명도가 참여한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서울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외에도 사랑의 밥 나누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봉사에도 힘쓰고 있다.

2005 성서한국대회 개최

사회선교를 표방하는 2005성서한국대회가 2005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봉호 동덕여대총장,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홍정길 목사, 옥한흠 목사, 이승장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과 상기 기독교 NGO 등 복음주의 사회선교단체들 30여개가 총망라

된 이번 대회는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락처: tel 02887-2232
fax 02 887 2284,
bible-korea@hanmail.net
관악구 봉천4동 865-2 세종오피스텔 817호

서울대학교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흥겹게 진행

5월15일 오후 예배 후 버들골에서 열린 체육대회가 전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흥겹게 진행되었다. 줄다리기, 특이한 농구, 풍선게임, 방석뒤집기 등 다채로운 경기에서 셀별로 단합하여 뛰

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특히 김태자 전도사님 김주연 사모님이 마련해 오신 넉넉한 음식은 교제를 한층 풍성하게 하였다.

사설

나폴레옹의 사람됨을 묻는 질문에 그를 만난 일이 있었던 푸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의 왕비인 루이제는 그는 힘이 있었으나 절제가 없었다고 답한 적이 있다. 절제 없는 힘을 나폴레옹의 특징으로 지적한 것이다. 19세기 중엽에 크게 활약하였던 푸러시아의 보수주의적 사상가 게르락은 푸러시아인들이 높이 기리는 프리드리히 대왕을 한번도 대왕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다만 프리드리히 2세라고만 불렀던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힘이 있었으나 절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힘에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살리기 위하여 쓰일 수도 있지만 죽이기 위하여 쓰일 수도 있다. 건설을 위하여 쓰일 수도 있지만 파괴를 위하여 쓰일 수도 있다. 빛을 위하여 쓰일 수도 있지만 어둠을 위하여 쓰일 수도 있다. 힘 자체는 윤리적으로 중성적인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물이

없이 살 수 없고 전기가 없이 삶이 어렵겠지만 집에 들어오는 수도물이 수도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집에 흘러든다면,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제어할 수 없는 형태로 집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재앙일 것이다.

힘과 절제의 사람이 되라!

힘으로 하여금 빛과 생명을 위하여 기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절제이다.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들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라도 절제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로서 말하는 것들 가운데 마지막 것으로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들을 인권을 억압하

고 유린하는데, 생명을 파괴하는데, 어둠을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 인권을 신장하고 자유케 하는데, 생명력을 극대화하는데 그리고 빛을 위하여 힘들을 사용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동기요 목표이다. 우리도 역시 힘을 구한다. 그러나 그 힘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따라 써야한다는 절제에 인도되는 힘이어야 한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복제연구의 성공 앞에서 세계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우리 국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라 있음을 보면서, 혹 이 연구결과가 어둠의 종이 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 생명의 파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신적 질서를 교란하려는 헛된 시도에 쓰여 지지 않을 가 염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독교학생들이여, 힘의 사람들이 되라 그러나 그에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절제의 사람들이 되라.

서울대 선교를 위한 연합 기도의 밤

서울대 교회와 대학촌 교회가 연합으로 가진 기도의 밤이 5월 13일 오후 7시반 대학촌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수들, 대학교회 목사님들과 스태프들, 기독교생들, 대학촌 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 서울대학교의 영적 각성을 위해 간구하였다. 이날 인도는 대학교회의 박홍수 목사가 맡아 진행하였다.

열린 예배로 드리는 수요일예배

매 수요일 오후 6시부터 드리는 대학교회의 예배가 열린예배 형식으로 드리기 시작하였다. 매 모임마다 90명정도가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있다. 5,6월의 예배를 위한 강사들은 아래와 같다.

- 5월 4일 박형서 선교사(러시아 선교사) 5월 11일 이 장호 교수(Acts 선교학과 교수)
- 5월 18일 Steve Stewart 목사(캐나다 New Life Church)
- 5월 25일 김영한 교수(숭실대 기독교대학원원장) 6월1일 유은상 교수(대학촌교회장로)
- 6월 8일 박인용 목사(부천 온누리 교회) 6월15일 제원호 교수(서울대 물리학부)
- 6월 22 홍종인 교수(서울대 화학부) 6월 29일 김철웅 목사(대학교회 영어예배)

서울대학교직원 기독교신우회



담게 하는데 있다

한편 기독교신우회에서는 2001년부터 학교내 정보광장 게시판을 통해 『사랑의밤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모아진 성금을 매월 관악구 난곡에 위치한 『사랑의 밥집』을 통해 전달하

서울대학교직원기독교신우회는 직원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소수의 기관 및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이어져 오던 중 1995년부터 『참 좋은 교회』를 시무하시는 이종웅 목사님을 모시고 관악 캠퍼스내 전 기독교인 직원을 대상으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기독교인 직원은 500여명이나 등록된 회원은 150여명으로, 상시 매주 수요일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40~50여명에 이른다

예배시간은 매주 수요일 12시에서 12시 50분까지이며, 장소는 56동(자연과학관)106호로 년중 무휴예배를 드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있다

이 예배에는 교과를 초월하여 직원 중 모든 기독교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이종웅 목사님의 말씀인도와 찬양과 기도로 진행하고 있다

기도제목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 관악캠퍼스내 총장 등 모든 구성원 복음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깨

여 결식아동들을 후원함으로써 다소나마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현재 이주동 회장 <사무관, 기획실>을 중심으로 회장을 역임한 고문 5명과 부회장 7명, 총무, 회계, 주보 담당 및 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등 임원진을 갖추고 있다.

매주 수요일 12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회원과 함께 예배드릴 때,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로서는 많은 위로와 감격이 넘쳐난다.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시고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더더욱 이 수요일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넘쳐 흐르길 기대한다
살롬.....!!

김혁태(서울대 기독교 신우회 총무, 도서관 근무)

이달의 기도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심히 작사운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신실하심이 너무 크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하셨나이다

창세기 32장 9-12

책 소개

■과학과 신앙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서울대학교 기독교인 교수들의 믿음의 수필들

- 글쓴이들: 박성현, 전종갑, 민동필, 정영근, 정학성, 홍종인, 고 건, 김병문, 제원호, 김희준, 이계준, 임지순, 김경렬, 한종규, 이인규, 이후철, 강신후, 박근수, 우규환, 최승언, 박재형, 이왕재, 박태원, 양병이

1997년 12월 / 도서출판 대학촌/ 값 7000원

■좁은 문에 서 있는 젊은이에게

서울대 교수 27인의 삶과 학문과 신앙 이야기

- 글쓴이들: 우규환, 문양수, 박성현, 전종갑, 장창두, 양병이, 한종규, 조성권, 권오승, 이순형, 강신후, 김병중, 김재일, 조흥식, 민현식, 김기선, 홍종인, 제원호, 박근수, 남승호, 박세웅, 박태성, 하순희, 현택환, 김철웅, 이종웅, 송기섭

2003 9월/ 민영사/ 값 1만원

■ 단대 기독인 모임 소식들, 선교 단체 소식들 ■

간호대

저희 간호대 기독인 모임(간기모)은 학년별로 매주 한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1학년은 관악에서 2,3,4학년은 연건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서 서기연, 연기연과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에 부활절의 기쁨을 학과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이쁘게 장식한 계란을 연건에 있는 간호대 학생 모두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5월 18일에는 연건 기독인 연합의 주제로 JAZZ&JESUS 라는 전도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들목 사랑의 교회 김형국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시고 교회 소속의 전문 JAZZ팀이 연주함) 실습과 수업으로 바쁜 캠퍼스 사람들에게 JAZZ공연으로 부담없이 접근했고 무엇보다도 선교단체와 단대별 기독인 모임이 함께하는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간기모에서는 집회에 왔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때때로 모임에 초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은 간기모가 기독인들의 나눔이 있는 모임에서 나아가 간호대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락처 : 간기모 대표 유은서 (011-9980-6867)

농생대

안녕하세요. "농생대 기독인 연합(농기연)"입니다. 저희 농기연은 농생대내의 모든 기독인의 모임이며, 각과의 기독 모임 대표와의 상호연락망으로 연합하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과의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함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됨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농기연에서는 농생대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를 통해 연합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에는 많은 농생대 지체들의 섬김으로 농생대 개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바이오시스템학과와 과 기독 모임이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 현재 농생대에는 농산업교육과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그리고 산림자원학과와 과 기독 모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은 농생대의 모든 과에 기독 모임이 세워져 있지 않지만, 농기연을 통해서 과 기독 모임이 세워지고, 이러한 과 기독모임들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http://snuacu.cyworld.com> (첨부사진은 예수대행진때 사진입니다.)

연락처 : 대표 신학동(식품공학 04, 011-9995-7371, shd-akong@hanmail.net)



미대 크리스찬 모임. (미크모)

안녕하십니까 미대 크리스찬 모임입니다. 저희는 단대 기독인 모임으로 미대안의 조소과, 서양화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 이런 학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대안의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

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로 지금 매우 축복받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모임들에서 느끼기 어려운 사랑과 따스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들어 정기모임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몇해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선배님들의 기도와 수고로 이번에 좋은 때를 주셔서 금요일 오후 5시에 미크모룸 (50동 106 - 2호)에서 정기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공부 모임도 갖게 되었는데 수요일 오후 3시에 미크모룸에서 PBS한 내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대의 특성상 많은 작업과 과제들로 지체들이 분주하고 지쳐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축제때에 파인애플장터를 은혜중에 마쳤는데요 그것은 9월달에는 있는 17회 프로클레임 전을 위한 장터였습니다. 프로클레임전은 미대 지체들이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작업한 것을 일년에 한번 전시하는 전시회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서울대 안에 이 땅안에 복음의 울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작업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림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문화관에서 하는 전시에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미크모가 하나님보시기에 순종하는 착한 종으로 더욱 사랑하고 성장하여 서울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글을 마칩니다.

연락처 : 대표 심영은 (016-228-1455)

법대 기독인 모임

안녕하세요^^ 법기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기독은 몸담고 있는 법대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진 기지라는 소명과 10년,20년 후에 더더욱 하나님께 쓰임 받아 법조계의, 아시아의, 나아가 세계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법대의 권오승 교수님과 구대환 교수님께서 법기독의 지도교수님으로 섬겨주시고 있으며, 주님의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정영환 목사님께서 법기독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법기독은 지난 1학기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15동 209호에서의 예배와 화요일 오후 6시의 삶나눔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 아침 8시의 법대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며 활동하였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 특별행사로 부활절에는 법대에서 계란과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였고, 법기독 자체 엠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사법연수원 신우회의 '사랑축제'에 참여하여서 타학과의 법기독 지체들과 교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방학때에는 기독교번화사회에서 주최하는 기독교번화사 인턴십에 참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고시에 병행해서 나가는 바쁜 공부 일정에 치여서 겨우겨우 자신의 신앙만 지키기에도 허덕이는 약한자인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구하는 약한 자를 올리시고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로 부끄럽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그 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는 법기독이 되겠습니다^^

연락처 : 대표 길윤호 (02) 016-249-7568

나법대 기독인 연합

[사법기연 근황]

* 사법기연 전체 모임은 매주 화요일 12시에 12동 지하 사법기연룸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12개의 과에서 기도모임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사회, 독어, 지구과학 교육과에는 아직 없음). 5월달에는 기도모임을 이끌어왔던 많은 선배들이 교생 실습을 나가는 바람에 모임을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주세요.

[사법기연 기도제목]

* 사법대 안의 15개 과 안의 기독인들의 마음 가운데 연합과 다른 과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주시도록

* 새로 리더쉽이 세워지는 과 기도모임들이 많은데, 사역 계승이 잘 이루어 지도록

* 올해 사법기연을 섬겨주실 지도 교수님을 세우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사법기연에서 알리는 글]

* 6월 17일(금)에 사법기연 종강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 외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법기연 커뮤니티(CTs.cyworld.com)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사법대 안의 기독인 학우들, 그리고 각 과 기독인 교수님도 함께 참여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락처 : 조성민

약대 기도제목

새벽빛은 약대 기독인 모임으로 매주 목요일 점심 모임을 하고 한달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합니다. 정기모임은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갖고 함께 영상을 본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또한 다음학기부터 04학번이 대표학번을 맡게 되는데 아직 04학번들의 동역이 잘 준비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이번 방학동안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일정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대인들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벽빛지체들이 그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연락처 : 김지연 018-504-0130

죠이 선교회

죠이선교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후 6:12)-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JOYER, 포효하다!"라는 주제로 대전 목원대에서 전국 죠이 여름수양회가 있습니다. 서울죠이에서는 60명 참석을 두고 기도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후원하기 위해 수양회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죠이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NLC(New Life Camp)에 많은 친구들이 초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양회 준비위원과 NLC준비팀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연락처 : 김초롱(01) 016-9345-3666

이달의 말씀

신입생 김군에게



이제 서울대에 입학한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군. 늦게나마 서울대에 입학한 김군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입학하기 어렵다는 서울대에 입학하였으니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또 김군도 얼마나 뿌듯하겠나. 하늘을 날듯이 기분이 좋겠지. 이제 대학생활이 새로이 시작되었으니 정신이 없게 바쁠 것으로 생각하네. 서울대의 분위기도 익히고, 새로운 수업방식에도 적응해야 하고, 새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새로운 과외활동에도 참가해야 하고, 오만가지 신입생 환영회에도 참석하여야 하고, 등등 할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할 것이네. 그러나 대학선배로서, 인생선배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김군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어른의 잔소리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경청하여 보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김군의 대학생활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될까하여 주는 말일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김군의 인생에 대한 미래 비전(vision)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준비기간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것이네. 미래의 자기 모습을 빨리 설정하기를 당부하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한가로이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네. 얼마 전에 만난 박군은 나에게 말하기를 “고등학생 시절에 입시준비로 하도 고생하여서 대학 1학년은 좀 놀면서 쉬어야 겠다”고 하더군. 대학 4년은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 1학년 때 놀고, 2학년 때 공부 좀 해볼까 생각하고, 3학년 때 나의 적성이 내 전공에 맞는가 안 맞는가 고민하다가, 4학년 때 취직 걱정하다 보면 벌써 졸업이지. 시간을 아껴서 일찍부터 인생설계하고, 대학생활을 이에 맞추어 운영해 나가기를 당부하네.

두 번째로, 대학생활의 기본은 역시 치열한 학문탐구이네. 학창시절에 자기 전공이나 혹은 관심 있는 다른 전공분야에 대하여 심취해보는 기간이 없다면, 이는 대학생활을 값있게 보냈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도서관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경험이나, 여러 권의 서적 속에 파묻혀 고민해 보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당부하네.

세 번째로, 서울대 졸업생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대인관계와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가끔 듣곤 하네. 김군이 졸업할 때에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네. 그러기 위해서는 학창시절이 좋은 인성훈련의 기간이 되기를 바라네.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훈련을 쌓으면 좋은 인성훈련이 되리라 보네. 이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큰 자산이 될 것일세. 이러한 훈련이 힘들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기를 권하네. 성경 속에는 이런 인성훈련을 부단히 하도록 권하고 있으니, 깊은 신앙심을 가지면 자연히 좋은 인성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네.

마지막으로, 인생은 긴 마라톤 경기와 같고, 대학은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말하고 싶네. 긴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체력이 필수이네. 대학생활 동안 김군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두 개 익혀두기 바라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는 말을 나는 믿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건강을 위한 스포츠에 시간을 투자해 보게나. 자네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인생의 유익하고 즐거운 동반자가 될 것일세.

혹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거리낌 없이 김군의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면담하게나. 인생의 선배님들이니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걸세. 잘 아는 교수님이 없으면 학과장이나 학과 조교도 괜찮지. 서울대는 김군이 후회 없는 대학시절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네. 김군에게 사랑을 보내면서.

박 성 현 교수 (통계학과, 서울대학교회 상임위원장)

2005 서울대학교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Cambodia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남 아시아의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공식 언어는 크메르어입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크메르 루즈에 의해, 중상류 계층과 지식인들은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서구의 영향과 과학 기술 등은 축출되었고, 도시 거주자들은 모두 강제로 시골로 이송되어 통제 아래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독재와 게릴라전은 계속되었고, 1993년에 이르러, 유엔의 감독아래 첫 민주 선거가 치루어 졌습니다. 후된 그 땅은 불과 50년 전 우리 민족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치고 상한 그 민족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 전체 일정

- 7. 2(토): 인천공항 출발(타이 항공), 방콕 경유,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
- 7. 3(일): 깔멧 교회 예배 참석, 주일학교 섬김, 현지 청년들과 교제
- 7. 4(월)~7.8(금): 프놈펜 대학, Norton 대학, NIM 전도, 사역지 방문 등
- 7. 9(토): 초청집회(Come & See) 준비
- 7.10(일): 깔멧 교회 예배 참석, 결신자 초청 예배(Come & See)
- 7.11(월): Killing Field 방문. 땅밧기 기도. 18:50 프놈펜 출발 방콕 경유
- 7.12(화): 인천 공항 도착 (오전 8시)

동역 선교사: 공베드로-이선아 선교사(깔멧교회, OMF 소속)

연락처: 홍종인 교수 (전화: 880-6682, 010-6378-4084)

2005 성서한국대회

사회선교를 표방하는 2005성서한국대회가 2005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다.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된 크고 작은 시민 사회운동이 있어왔다. 성서한국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성경적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 좋은 교사운동, 기독교변호사회, 남북 나눔 운동, 희년선교회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기독교 NGO 실무진들이 조직위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성서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그동안 쌓아온 각 단체들의 역량을 한곳에 집적하여 다음 세대 청년학생들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최초의 '사회선교 동원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봉호 동덕여대총장,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홍정길 목사, 옥한흠 목사, 이승장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과 상기 기독교 NGO 등 복음주의 사회선교단체들 30여개가 총망라된 이번 대회는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 주제 강의를 복음주의 사회선교신학의 신학적 틀을 새롭게 조명하고 제시할 김희권 교수(송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일산신학교

여름 단기 선교

되리라 하시니라”

Thailand 태국

올해에도 불교의 나라, 아직도 국왕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입헌군주국 태국에서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단기선교가 계속된다.

강신후 교수를 팀장으로 하고 서울대학교회의 영어예배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축을 이루는 선교팀이 6월26일부터 7월 6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선교사역에 들어 간다.

이 팀에는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다. 태국의 왕립 쾰라롬콰 대학 타마사 대학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현지교회와 선교단체들과도 동역하는 사업도 전개할 것이다. 참가 비용은 70-8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락처: 강신후 교수 (880-7167, 016-268-9268) shinkang@plaza.snu.ac.kr

Kazakhstan 카자흐스탄

7월12일에서 23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이루어질 카자크스탄 단기선교의 선교팀은 알마타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도활동이외에도 교려인 사역, 카작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문화선교 알마타 교회에 참여하는 동역 사업 등 다양한 선교프로그램을 벌이게 된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 긴 기간동안 공산주의를 체험한 나라 전인구의 대부분이 회교인 이 어둠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어두움속에 비치게 될 것이다. 참가비용은 140-1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황준석 교수가 팀의 지도를 맡게 된다. 많은 학생의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황준석교수 (880-8679, 011-9290-8679) junhwang@snu.ac.kr

■ 간증문 ■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이 수 현 (2003년 당시 미술교육전공 석사 2년)

먼저 이렇게 무사히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기간 내내 팀 8명 한 명 한 명을 돌보아 주셔서 다른 기후와 음식과 환경에 잘 적응하고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12일 토요일 저녁부터 21일 오후까지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짐을 풀고 열흘간 머무르며 그 중 8일간 깔멧 교회와 프놈펜 대학에서 주일학교 활동과 예배, 전도활동, 전도자 초청의 밤 행사 등에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평화의 집, 세계적 선교단체인 OMF센터, CCAM(CAMBODIA CHRISTIAN ART MINISTRY) 학교 방문을 통해 교회와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선교의 모습들을 둘러보고 현지 선교사님들로부터 생생한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졌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에서의 활동들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해서 간단히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사역을 통해 다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캄보디아를 향한 사랑입니다.

도착 날 공항에서 수도인 프놈펜 시내를 들어가며 받은 문화적 충격을 생각해봅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이토록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저 추상적으로 이해했던 캄보디아의 어려움을 느끼며 '희망'이라는 단어가 '절망'이라는 단어에 가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도 안에는 고층 빌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주요 청사와 건물 앞을 제외한 많은 곳은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 눈의 판단과는 다르게 숙소 주변과 프놈펜 대학에서 만난 친구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은 경제적 부를 이룩한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합당한 나라였습니다. 사영리를 전하려 다가갈 때 활짝 웃으며 마음을 열던 그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새로 만나는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닫혀있던 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출생부터 불교신자였고 가족과 친구들의 환경 때문에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반감과 두려움을 표시하는 친구들도 "크리스찬과 불교도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마음 문을 열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이들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캄보디아 팀을 향한 사랑입니다. 간사님과 교수님, 목사님을 제외한 저희 학생들은 모두가 처음으로 선교지를 밟는 병아리들로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프놈펜 대학에서 첫날 전도활동을 마치고 우리 팀원 모두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학생들을 영접시킬 수 없다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희의 세세한 기도내용에 응답하여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우리 자신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는 임신자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저희는 가는 곳곳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69명이라는 학생이 하나님을 영접을 목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위한 서울대학교회의 중보 기도와 후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후원회비는 현지 교회인 깔멧 교회의 예배 공간 마련과 주일학교 사역, 전도자 초청행사에 귀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깔멧 교회의 공베드로 선교사님과 이선아 선교사님, 프놈펜 대학의 임신자 선교사님, OMF 센터의 엘리스 선교사님과 쇼 선교사님, 조아김 선교사님의 기도와 도우심으로 열흘간 '선교'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헌신이라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놈펜 대학 친구들에게 읽어 주었던 '사영리'의 말씀을 떠올리며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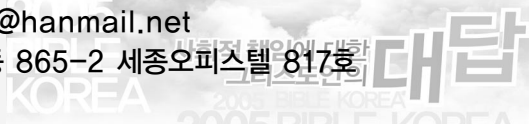
회 담임목사)가 진행하게 되고 실제 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선교의 내용을 좋은 교사 운동의 송인수 상임총무, 기독교변호사회의 박종운 사무국장, 밝은 의료사회를 꿈꾸는 누가들의 모임의 활동들을 통해 소개하게 된다. 그리고 구제 및 봉사 영역에서는 남북 나눔 운동, 희년선교회(외국인노동자), 광야교회(영등포 쪽방) 등의 활동이, 사회변혁 영역에서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교회개혁실천연대, 그리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의 활동들이 각각 소개될 예정이다.

성서한국은 지난 2003년 9월 25일과 26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있었던 제 1회 성서한국포럼 "성서를 한국에, 한국을 성서위에"와, 2004년 12월 14일 이화여대 교육문화관에서 있었던 제 2회 포럼 "기독교 사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참여단체간 연대에 관한 일정한 모색과정을 거친 상태인데 이번 대회를 치른 후 복음주의 기독교 내의 명실상부한 대표적 사회선교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연락처: tel 02887-2232 fax 02 887 2284,

bible-korea@hanmail.net

관악구 봉천4동 865-2 세종오피스텔 817호



유대인, 세계속의 나그네들 3

- 1.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 2. 성경 속의 유대인: 세계 속의 나그네들
- 3.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와 유대인들
- 4. 중세: 기독교권 속의 유대인들 이슬람권의 유대인들
- 5. Sephardim(오바다 20절)과 Aschkenasim(창 10장3절)
- 6. 해방의 선언: 프랑스 대혁명, 프러시아의 대개혁, 러시아 혁명
- 7. 반셈주의와 Hitler의 유대인 대학살
- 8. Zionismus와 이스라엘의 독립 이야기를 마치면서

6. 해방의 선언: 프랑스 대혁명, 프러시아의 대개혁, 러시아 혁명

십자군 전쟁 당시의 반유대주의적 여러 사례들, 1492년 스페인에서의 유대인 대 추방, 러시아의 Pogrom 등에서 나타난 것 같은 반유대주의적 억압들, 유대인들에게 이런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선언된 것은 19세기 들어와서부터입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18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단행되었던 프러시아의 대개혁,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혁명 등은 유대인의 자유를 선언한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1792년 프랑스의 혁명의회인 국민의회가 유대인의 완전한 시민권의 부여와 정치적 평등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이어 나폴레옹은 그의 영향력하의 모든 나라에 사는 유대인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1796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의 유대인 Ghetto의大門을 부수고 유대인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나폴레옹의 예찬자임을 감추지 않습니다. Heinrich Heine의 Deutschland, ein Wintermarchen이란 작품 속에서 극도로 예찬된 나폴레옹의 모습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은 유대인들을 Ghetto로부터의 해방시키고 아울러서 유대인들에게 평등한 시민권을 주는 관용의 정책은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내적 결속력과 정체성의 약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중세의 유대인들은 그들 사이에 Ghetto를 중심해서 완전한 자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Ghetto란 원래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양식의 보전을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그

들 스스로가 형성한 유대인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 그들은 이 Ghetto를 만들었는데 미국에 가 보아도 곳곳에 이 Ghetto의 흔적들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의하여 개최된 산헤드린 회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산헤드린 회의란 원래 70인 쯤으로 구성되는 유대민족의 대표자 대회의 성격을 갖는데 이는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때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중요한 종교적인 문제 혹은 유대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었던 이 모임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판을 위하여 그리고 초대교회의 억압을 위하여 모인 일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임은 위에 언급한 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과 제2의 성전이 훼파된 이래 한번도 모여 본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에 의하여 개최된 산헤드린 회의는 세계 유대인들의 눈물의 감격 속에 모였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나폴레옹에게 모세의 율법은 원래 종교적인 것으로 세속의 법률이 아니며, 유대인은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랍비의 권한은 국민의 사법적인 일에 미치지 않고, 유대인은 이미 특별한 자치제를 갖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과 그의 전파자 나폴레옹이 선언한 유대인의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한의 실제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유럽에서의 한 패권국가의 출현을 막고 세력 균형의 회복을 위해서 싸웠던 프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의 자유가 선언 되었다. Friedrich Wilhelm III와 왕비 Luise, 그리고 그의 신하들 Freiherr von Stein, Hardenberg 등이 주동되어 단행한 1808년 이후 계속된 일련의 대개혁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독일인들과 동등한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농노를 해방하고 토지를 분

배해주고 교육제도를 바꾸고 군제를 민주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와 더불어 유대인의 자유와 평등이 부여된 것입니다. 당시의 보수 세력들의 저항은 만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 가정

만치 않았습다. 특히 당시의 최대 사상가의 한사람인 Adam Muller에 의하여 대필되었다는, Marwitz장군이 개혁의 수장 Hardenberg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유대인에 대한 시민권의 부여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 유럽에서 히틀러의 등장 이전까지 가장 철저하고 가장 늦게 까지 유대인들을 박해에 가까운 엄한 규제를 하였던 나라는 위에 언급한 대로 러시아였습니다. 이 러시아에 유대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후의 일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기본적 성격이 계급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사회화적인 것이어서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그들의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유대인의 차별의 철폐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닌의 후계자 문제를 결정짓는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투쟁에서 반유대주의적 선전이 당원들 속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데, 이는 아직도 살아 있는 반 유대주의적 잔재라 할 것입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18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단행되었던 프러시아의 대개혁,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혁명 등은 유대인의 자유를 선언한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소련에서의 유대인 자유선언 역시 나폴레옹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유대인 집단의 기본적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고 해체 내지는 축소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러시아 유대인의 말인 Jiddisch를 쓰도록 허용 받은 유대인 자치구가 멀리 시베리아 Birobidschan에 약 인구 10만의 규모로 남아 있는데

1933년의 추산에 의하면 러시아의 유대인 수가 400만을 웃도는 것인데 나머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지켜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러한 자유의 선언이후 유대인들은 문화 정치 학문 예술 등 여러 방면에 진출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의 반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7. 반셈주의와 Hitler의 유대인 대학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대혁명은 서 유럽의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한 사건이었고, 프러시아의 프라이헤르 폰 슈타인의 대개혁은 중유럽의 유대인에게 해방을 준 사건이었으며,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동유럽의 유대인에게 해방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의 선언은 실제적인 유대인의 해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Antisemitismus라는 인종주의적인 반유대주의가 새로이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반 유대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래가 길고 뿌리가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Antisemitismus는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새로운 논리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과거 중세 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컸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혹은 그들이 속한 문화에 동화하기만 한다면 차별과 박해로부터 피해갈 수 있었고 그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반유대주의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유대인들이 당하는 것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였다. 프러시아의 개신교 목사였던 아돌프 슈퇴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 주를 죽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교회의 적대자가 되어 교회를 박해한다고 유대인들을 규탄했는데 이는 유대인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나 과격한 사회

주의자들이 반교회적인 혁명의 이론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반셈주의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적극적 공헌이 많고 그들이 속한 나라에 대하여 애국적이라 할 찌라도 유대인이기만 하면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

다. 원래 Anti-Semitism란 언어학적인 분류에서 빌려온 말이었습니다. 쉘족 언어와 관련하여 쓰인 말이긴 하나 쉘족 전체를 미움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대인을 미움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가 원인이 되는 반유대주의가 이른바 Anti-Semitism입니다.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J.A. Gobineau 백작에 의하여 씌어진 1853 "아리아 종족의 우월"이라는 책에서 백인종의 우월성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면서 모든 문명의 몰락 뒤에는 오직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이는 우수한 귀족의 피가 대중의 열등한 피에 희석되어지기 때문이라 보았고 선민인 아리아인의 피

자기의 이론 속에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인 히틀러였습니다. 1차대전에서 하사관으로 참전하고 1919년 다시 문헌으로 돌아온 당시 30세의 젊은이 Hitler는 그가 참여했던 독일 민족주의 노동당의 당원들과 함께 시도했던 구테타의 실패 후 1923년 감옥에 가 있었던 8개월 동안 그의 정치적인 강령이라 할 수 있었던 Mein Kampf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인종주의적인 신화를 논하면서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아리아 종족의 우수성과 다른 민족들의 열등함을 논하고 이들 간의 혼혈을 통하여 위협되는 인종의 쇠퇴 사회의 타락을 경고

“금융재벌들과 불세비즘은 외양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은 이 두 세력 뒤에는 세계지배를 위한 하나의 유대인의 세력이 있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그리고 자유석공조합 등은 유대인의 도구일 뿐이라고, 따라서 모든 세계의 가장 큰 해악의 근원은 유대인들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가 민주주의라는 과정에서 비아리아인의 피에 희석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영국인으로 독일에서 살던 H. S. Chamberlain은 Gobineau의 이론과 Nietzsche의 초인의 철학을 결합하여 북구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인종과 초인에 관한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반셈주의를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반셈주의적 지적인 운동에 기름을 부은 것은 1895년 러시아에서 익명으로 출판된 “Die Protokolle der Weisen von Zion”이란 책인데 번역하면 “시온의 현자들의 의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864년 부러셀에서 출판되어 나왔던 나폴레옹3세가 유럽지배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큐의 입을 빌려 개진하는 풍자적 소설 “Dialogue aux entre Machiavelli et Montesquieu”의 내용을 개작해서 세계를 지배를 시도하는 사악한 유대인들의 국제적 음모를 논의한 것을 담은 책으로, 많은 순진한 유럽인들의 반유대적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책이었습니다.



부림절을 즐기는 유대인 가정

세계를 괴멸시키려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다. 아리아종족적인 것의 선두는 독일이기에 독일은 바로 유대적인 적대 세력들의 제일 큰 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을 파멸시키고자 1914년에서 1918년에 이르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금융재벌들과 불세비즘은 외양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은 이 두 세력 뒤에는 세계지배를 위한 하나의 유대인의 세력이 있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그리고 자유석공조합 등은 유대인의 도구일 뿐이라고, 따라서 모든 세계의 가장 큰 해악의 근원은 유대인들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933년 1월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반셈주의를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의 노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1805년 Freiherr von Stein의 개혁 당시 주어졌던 시민적인 동등한 권

NSDAP의 기관지 Volkische Beobachter 지의 출판을 맡았던 히틀러의 동료 Alfred Rosenberg의 인종주의적 책인 “Der Mythos der 20. Jahrhunderts” 역시 반 기독교적이고 반셈주의적인 저서입니다. 이러한 Anti-Semitismus의 이론을

■ 서기연 ■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을 제안함

서기연 북한 사역은 지난 2002년 가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은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981년부터 9년간 쉬지 않고 독일 통일을 위해 기도 하였던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모임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공식적으로 동서독이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 현실은 이 땅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통일을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통일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통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해도 언젠가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만일 닥칠 일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엄청난 사회적 충격에 노출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무죄한 피가 가득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주께서 그 동안의 반목과 상쟁으로 막힌 철의 담장과 마음의 담장을 당신의 입김으로 녹이시리라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이 결국은 올 것이며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역을 나누다 보면 열심 있고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저의 비전이 아니에요." 물론 북한 사역은 고도의 전문성과 보안, 그리고 자기 몸을 내던질만한 치열함을 요구하기까지 저 스스로도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지는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들이 속한 곳에서 우리들이 가진 도구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크리스천 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북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실로 아무도 자기의 비전이 북한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무너진 북한의 각 영역을 세우는 데에는 거의 모든 영역이 전부 필요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각 영역은 철저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닥칠 통일과 그것이 몰고 올 격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여파는 변호사이든, 의사이든, 목사이든, 교수이든, 예술가이든, 우리가 그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로 섬기든지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우리의 비전도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 사역은 연합을 회복하려는 사역입니다.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일은 그 자체로 분열에 대한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는 모든 사역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오늘날의 냉소적 개인주의 - 주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 11:17)" - 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로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컨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북한 사역의 가장 큰 부르심이며 다른 사역들보다 우선합니다.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쳐 부숴 이겼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론, 한 사람의 훌을 찾습니다. 우리의 팔이 내려가고 기도가 피곤하여 끊어지려 할 때 우리 곁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그 한 사람 용사를,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처럼 언제나 팽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나 성인 (2005. 봄. 서기연 제 1대 북한 담당 중앙위원, 독어독문 석사과정)

■ 한 국제문제 전문가가 본 세계속의 한국 ■

한미동맹 빨간불, 해체 기로

공로명 (전 외무장관)

지난 3년 사이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대단한 변화를 맞고 있다.

우선 한미간 인식차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 같은 인식차이가 생겨난 첫째 원인은 2002년 6월 13일 의정부 여중생 사고로 촉발된 반미감정과 이것이 미국에 던진 파문이다.

둘째 우리 사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을 들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시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김정일을 폭군으로 규정했고,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테러리스트 간의 연계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며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대통령은 '북핵개발이 자위를 위한 것으로 일리 있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다. 한미간 현격한 인식의 차를 드러내 온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한미동맹을 묶어 온 한 축이었는데 이제는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는 위화감이 '이탈된 동맹·줄행랑친 동맹관계'를 만들어냈다.

물론 한미동맹이 '줄행랑치고 이탈된' 동맹이 된 배경에는 미국 자체의 전략적 변화도 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대신 보다 유연하게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량화된 주한미군이 감축되면서 북한도 발을 초전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고 여기에 전시비축물자 폐기통고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에서도) 지상전(地上戰)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선 2차대전 이후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해 온 미국 대신 한국이 균형자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고... 현실을 무시하고 망상(妄想)에 사로잡혀 국가대계를 망치는 사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미국 내 입장, 동맹종식론·현상유지론·다변화론
지난 4월 말 하와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韓美日中 4개국 안보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동북아안보문제'가 첫 의제로 다뤄졌다. 칼 베이건 선임연구원은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이 전환기에 와 있다며 최근 미국의 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동맹종식론'이다. '미국은 냉전 후 동북아

시아에 사활적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과의 동맹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한미동맹은 끝났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상유지론'이다. '한반도에 아직도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선 한미동맹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다변화론'이다. 종래의 북한위협에 근거한 주둔군위주의 동맹을 현실적 상황에 맞게 다변화시키자는 것이다. 한국 내 자주적 움직임을 반영하고 한국의 동북아에서 역할을 좀 더 확대시켜주자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동맹발전 과제, 공통된 대북인식

칼 베이건은 그 중 한미동맹의 이상적 형태는 종래의 한반도 내 동맹을 벗어나 지역적, 범세계적인 공동관심사를 다루는 동맹으로 다변화시켜가는 것이라 제안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핵문제와 해법, 북한인권 문제 등 큰 그림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파탄직전에 와 있는 것이다.

좀 더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

우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국이 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일동맹에 대한 한국의 불안, 대만문제 등에 있어 인식의 일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개선된·새로운·미래의 한미동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배려를 고려할 때, 대만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치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동맹은 공통된 위협에 대비한 것

이렇듯 현재 한미동맹은 해체나 존속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동맹이 해체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을 때이다. 동맹은 동일한 위협에 대비해 만들

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약한 파트너의 힘이 강해져 동맹이 사실상 필요치 않을 때이다. 셋째는 동맹국의 정체성이 달라졌을 때,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게 될 때이다.

이런 분류법을 한미동맹에 적용시킬 때 빨간불이 깜박거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핵문제와 해법, 북한인권 문제 등 큰 그림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파탄직전에 와 있는 것이다.

대일관계, 과거지향적 사고 극복해야

이제 한일관계를 생각해보자. 일본과의 관계는 조약상의 동맹은 아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지난 40여 년간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정점으로 실질적 동맹이자 준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일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이념을 추구하는 민주국가이므로 이 같은 협력관계를 가져 온 것이다.

물론 한일양국간에는 일제 36년 식민통치 유산을 비롯해 독도문제, 역사교과서문제 등 한일우호를 흔드는 민족감정 차원의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구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언제까지나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일본도 살고, 우리도 사는 윈윈(win-win)이 되기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규탄했으나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모두 5억 달러의 대일청구권자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포항제철을 짓고, 소양강댐을 건설하고, 마산에 경운기 공장을 지었다. 경제기획원은 76년 대일청구권자금을 10년간 집행한 뒤 이러한 결과를 담은 백서를 냈지만 우리 언론 어디서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볼 것은 제대로 봐야 하는 데도 말이다.

최근의 반일감정과 관련해서도 시마네 현(峴)의 독도조례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일본 전체를 비난했다. 바른 정신, 민주정신을 가진 이들마저 적으로 돌렸을 때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좀 더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이 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원장 김석우 前통일원 차관) 주최로 열린 공로명 전 외무장관의 강연요지이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다룬 연설의 전문을 김성욱 기자가 정리 요약한 것이다. 주간신문 미래한국 149호의 글을 옮겨 실었다.)

리를 박탈하고 유대인들은 이른바 Fremdenrecht라는 차별법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종사할 수 없는 직종을 늘려갔고 유대인들의 기업들은 SS의 연출하에 이루어졌던 국민적 보이코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술계에서도 유대인의 것들을 금지하고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음악가운데 Mendelssohn이나 Offenbach 그리고 Mahler등의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1935년 이른바 뉴른베르거 법에서는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결혼이나 혼외정사를 법으로 금하였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으로 취급한다는 것과 혼혈에 대한 특별관리 인종적인 수치의 범주는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1차 세계 대전 시 독일의 군으로 참전했던 유대인들이 96000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1200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헨덴부르크 대통령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배려는커녕 1차 대전 기념비의 전사자 기록에서 이들을 다 지워 없앴고 1차대전에 참전했던 유대인들 역시 다른 박해받는 유대인들의 대열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그의 인종주의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1939-45의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육체적인 근절을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독일에 의하여 점령된 유럽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폴란드 지역으로 이송하였고 독일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역시 폴란드지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집단

적 거주지인 이른바 Ghetto로 그리고 이후에는 강제 수용소들로 이송하였습니다. 폴란드 지역에 있었던 Auschwitz Maidanek Treblinka Bergen-Belsen 등 7개소의 강제 수용소는 유대인 근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친위대요 NSDAP의 엘리트 부대인 SS에 의해서 그리고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심복 Himmler등의 지휘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대인들의 근절이 194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1933년 당시의 유럽의 유대인들의 분포를 보면 소련에 4 백만, 폴란드에 3 백만 루마니아에 80만, 독일에 50만, 오스트리아에 10만, 체코슬로바키아에 30만 헝가리에 30만 영국에 30만 프랑스에 30만

스위스에 18000 정도였는데 이들 가운데 1939년 까지 독일을 벗어나지 못한 채 독일 점령지역에 남아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인종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단적인 총살, 집단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대량 학살, 가스실에서, 가스 열차에서의 대량학살 더 나아가서는 중노동과 영양실조, 질병에 의한 죽음 등으로 5백만이 넘는 유대인 희생되었습니다.

유은상 (본지 편집인)

(다음호에는 Zionismus와 이스라엘의 독립 이야기를 마치면서를 연재합니다.)